

광양을 푸르게

천만그루 나무심기 박차 산업도시 이미지 벗는다



광양시가 도심 곳곳에 꽃동산과 꽃길 조성에 한창이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천만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는다는 계획이다.



광양시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산림은 향후 손자의 손자가 산림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미래신기이자 역사를 심는 일'이라고 보고 목표를 세워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시는 민선6기 역점사업인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달성해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생태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략이다.

◇사계절 꽃이 피는 꽃길·꽃단지 조성=광양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도심 곳곳에 1000만 그루(2015년 150만 그루, 2016년 220만 그루, 2017년 280만 그루, 2018년 350만 그루)의 꽃과 나무를 식재한다.

시는 다양한 계절 꽃을 생산·식재하기 위해 6억원을 들여 42종 406만2000본을 자체 생산한 뒤 화단 1만4556㎡, 대형화분 1000개, 곱이 화분 1400개를 4회에 걸쳐 식재했다. 또 각종 행사에 꽃박스 2000개를 지원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돕고 있다.

올해는 400만본 꽃단지 식재의 원년으로 지난 3~4월 광양읍 및 중마동 시가지 일대와 국도 2호선변, 광양읍 서천변, 광양읍 덕레리 반송재 등에 4만7000㎡ 104만 본을, 면·동 별로 35만본의 꽃단지를 식재하는 한편 꽃동산과 꽃길도 조성했다.

특히 꽃단지 식재지 중 광양읍 고인돌 공원 1840㎡, 광양읍 서천변 장미동산과 연계한 4482㎡, 외우생태공원 앞 2063㎡, 마동근린공원 1342㎡ 등은 가족 나들이 장소로 시민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또 2016년까지 조성되는 광양읍동 동·서천 둘레꽃길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7개 구간

꽃·숲 어우러진 생태도시 조성 2018년까지 300억원 투입 지역 기업·시민들도 적극 동참

5.9km에 계절별로 9종 29만7000본을 식재한다는 계획이다.

◇나무심기와 숲가꾸기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광양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산림 및 도심지 곳곳에 나무심기를 추진하는 등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고 있다.

51ha 산림에 12만4000그루의 편백나무와 백합나무, 황칠나무 등 경제수를 조립했으며, 백계산 옥룡사지 등산로 주변 산림 10ha에는 동백나무 씨앗을 파종하는 등 백계산 전역에 동백나무숲을 조성해 경관과 관광자원으로 활용 방향 방침이다.

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동주 도시숲'에 회양목 등 2만6000그루를, 중동근린공원에 먼나무와 홍가시나무 등 1만7000그루 등 총 31만8000 그루를 식재하고, 민간단체인 '광양도심 숲가꾸기위원회'는 산다화 등 1만700 그루를 식재했다.

이 밖에도 마동저수 생태공원에 가시나무 등 1만1312 그루, 중마로 가로 썬지공원에 먼나무 등 7640 그루를 식재하고, 명품 가로숲(가로수, 띠녹지)도 조성했다.

포스코 등 지역 기업체와 단체들도 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시민 중심으로=시는 지난 6월 35개 단체와 도시녹화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숲 돌보미 활동을 전개 중이며, 현재까지 13개 단체 1222명이 비료주기, 제초 작업, 청소 등

정화활동에 참여했다.

또 꽃길 조성지의 사후관리는 시민 참여를 유도해 꽃잔디가 식재된 생활동 육교~시청 앞 녹지대, 외우 생태공원 앞, 마동근린공원, 광양읍 서천변 등은 광양시새마을부녀회와 동광양상공인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중마동동장협의회, 광양읍 이장단, 한려대학교가 각각 맡아 관리하게 했다. 중마동 주요 도로변 가로수와 공원, 녹지대는 동광양상공인연합회와 중마동체육회, 중마동청년회, 중마동자율방범대, 통장협의회 등 구역별 관리지역을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다.

◇경제수 실적 저조 등은 해결 과제=초화류를 심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면적 대부분이 백운산에 포함돼 있고 밤나무 조림도 많아 경제수 조립 실적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또 기후완화 및 소음감소와 대기정화, 휴식과 정서함양, 아름다운 경관 조성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도시숲 조성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사계절 꽃이 피는 꽃길·꽃단지 조성을 지속 추진하되, 실질적인 천만 그루 나무심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산림 등에 경제수 조립 및 시민의 보건휴양·체험활동 등을 위한 도시 숲의 조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내년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에 지난 해보다 2배가 많은 29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산림자원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향후 차별화된 자연친화적 산림휴양시설도 확대·조성해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도시로 조성에 나가기"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중증장애인들이 바리스타 꿈 이룬다

광양시청 내 '드림카페' 개소

전남 첫 지자체 연계 일자리 창출

광양시 등록 중증장애인들이 바리스타의 꿈을 이뤘다. 광양시는 "지난 2일 시청 내에 전남 최초로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고용된 '드림카페'를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서경식 광양시의회의장,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유화영 광양시장에인종합복지관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직원 명찰 달아주기과 커피 시음회 등이 진행됐다.

드림카페는 국비 5000만원 등 총 8800만원을 들여 55㎡(16평) 규모로 시청 민원지적과 바로 옆에 들어섰다.

카페운영은 광양시장에인종합복지관이 3년간 위탁·운영하며, 고용된 5명의 직원은 모두 관내 등록장애인이다.

매니저를 제외한 4명은 광양시장에인종합복지관에서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거친 중증장애인이다. 드림카페는 커피와 과일음료, 제빵, 쿠키류 등을 판매하



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 2일 드림카페에서 중증 장애인 바리스타들과 함께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며, 수익금은 직원 임금과 카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드림카페는 전남도 최초로 공공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혁신 통해 위기 극복하자" 광양제철 다짐대회

혁신성과 공유·우수사례 포상도

포스코가 3일 광양제철소에서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 다짐대회인 'IP(Innovation POSCO) Festival 2015'를 개최했다.

'위기를 넘어POSCO the Great로!'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서울-송도-포항을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해 동시에 진행됐다.

포스코를 비롯한 그룹사, 외주파트너사 등 포스코 패밀리 임직원 1800여명은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혁신방법론인 POSTIM(POSCO Total Innovation Methodology)의 올 한해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위기에 대해

공감함으로써 '고객'과 '현장'에 집중하고, POSTIM을 적극 활용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열린 우수 프로젝트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표됐다.

IP 페스티벌 시상식에서는 올 한 해 POSTIM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조직과 개인을 포상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권오준 회장은 "모두 포스코 고유의 혁신방법론인 POSTIM을 활용해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고 끊임없이 혁신하자"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혁신활동을 펼쳐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동참

시 공무원들 '릴레이 캠페인'

광양시 공무원들이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인 'SOS 1000만명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광양시는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정현복 시장과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인 'SOS 1000만명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지검에서 주관하는 'SOS 1000만명 릴레이 캠페인'은 인기 작곡가 '이대엽차기'의 재능 기부곡인 '배려 로고송'에 맞춰 신나는 '배려 율동'을 한 뒤 전용 페이스북(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에 동영상 올리고, 다음 릴레이 주자 3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정현복 시장은 캠페인을 이어나갈 다음 릴레이



광양시청 공무원들이 지난 2일 시청 회의실에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인 'SOS 1000만명 릴레이 캠페인'에 참가해 배려율동을 하고 있다.

이 캠페인 주자로 서경식 광양시의회의장과 안동일 광양제철소장, 이환주 남원시장 등 3명을 지명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Advertisement for JTBC GOLF 2015 Golf Academy King of Kings Main Sponsor. It features a golfer and text promoting a nationwide 300-course golf membership card with a 'Green Fee Free' offer. Includes a table with membership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ESTOUR (에스투어) overseas golf travel. It promotes a 'Total Free 50 Days' offer for a 5-year membership. Includes a table with membership tiers and contact information.